

여수시, ‘2026년 자원봉사활동 영상(UCC) 공모전’ 개최

올해 자원봉사 활동 영상 공모…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접수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6년 자원봉사활동 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여수 지역에서 펼친 자원봉사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일반 자원봉사 활동과 2026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된 중학생 이상 시민이다. 영상은 1분 이상 3분 이내, 해상도는 1,280×720픽셀 이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영상파일을 전자우편(kyw1006@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전문기구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 등 총 10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순간을 영상으로 공유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활동 모습과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일상 속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2026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

한 다양한 봉사활동 사례를 발굴해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우수작은 향후 시와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자원봉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반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생생한 자원봉사 현장에 따뜻하고 감동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자원봉사 활동 영상(UCC)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6. 8. 5.(수) ~ 11. 12.(목) / 100일간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1. 12.(목) / 43일간 *18시까지 도착한 메일
공모자격	• 공고일 기준 여수시민으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된 중학생 이상인 자
공모분야	• 2026여수세계박람회, 문화체육, 환경미화, 교통질서, 재난재해 등 자원봉사 모든 영역으로 반드시 2026년 여수시에서 활동한 내용
공모규격	• 해상도 : 1,280×720픽셀 이상(일반 스마트폰 가능) • 분량 : 1분 ~ 3분 이내 • 파일형식 : avi, wmv, mp4 중 택일 (온라인 게시 가능한 파일)
공모방법	•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서식 내려 받아 작성 후 영상파일과 함께 전자메일로 접수
심사방법	• 전문 기구 심사 후 11월 중 결과 발표 ※ 심사항목 : 진정성, 창의성, 완성도, 확산 가능성
시상내역	• 10명 시상 ※ 상장 및 상금 수여 ※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3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 ※ 응모 결과에 따라 수상 인원이 변경 될 수 있음.
발표 및 시상	• 2026. 11월 중 발표(여수시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및 시상 ※ 시상 : 2026년 자원봉사주간 행사 시 시상(일부)
기타	• 공모에 차제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영상파일을 제출바랍니다.

여수시자원봉사센터 | 문의 ☎ 061) 659-3692

‘2026년 자원봉사활동 영상(UCC) 공모전’ 안내문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민선9기 시민주권 이끌 ‘소통형 공직자’ 키운다

순천시(시장 손훈모)가 민선9기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실현을 위해 하반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시정 방침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시민주권 행정혁신 특강’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경제, 소통행정, 광역협력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할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8월에는 서울대 김현 교수 인문학 특강을 통해 고전과 인문학적 통찰로 사고를 확장하고, 6·7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시장 멘토링 교육을 진행해 공직자의 소통 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돕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과 업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순금이 빚어낸 ‘빛의 예술’로 떠나는 광양여행

광양시가 예술과 공간, 빛의 감성이 어우러진 문화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순금이 빚어내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면서 광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광양읍 인사리공원 반창고갤러리에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대한민국 금화(金畵) 예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일태 화백의 특별전 「천년의 시간을 품은 빛(Timeless Gold Art)」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순금을 활용해 회화와 조각, 부조, 에칭 기법을 융합한 독창적인 예술 장르인 'Gold Art(금화)'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금이 가진 영속성과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통해 찬란한 금빛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달항아리와 장미, 복돼지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순금 특유의 깊은 색감과 섬세한 표현은 관람자의 움직임과 빛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작품마다 서로 다른 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빛의 도시' 광양의 도시 이미지와 순금이 지닌 빛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색다른 의미를 더한다. 변치 않는 금의 광채를 통해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광양이 지닌 빛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도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가 열리는 인사리 공원은 갤러리, 카페, 스테이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곡성군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급식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식중독과 폭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및 조리기구 위생관리 ▲교차오염 방지 ▲조리시설 청결 상태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 여부 및 점검자 지정 현황 등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군은 현장에서 마을 대표와 조리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은 내년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마을공동급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죽곡면 신평마을의 한 주민은 "농번기에는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마을공동급식이 농사일은 물론 공동체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공동급식 운영을 위해 현장 관리와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곡성군, 전남문화재단 선정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왕’ 시·군 부문 1위 달성

전라남도문화재단이 도내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를 일선 담당자 격려를 위해 추진한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왕’이벤트에서 곡성군이 시·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이벤트는 도내 시·군 및 읍·면·동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사업 목적 달성과 발급률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곡성군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평가 결과 곡성군은 이벤트 기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을 7.69% 끌어올리며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영암군(7.52%), 순천시(4.61%), 담양군(4.41%), 보성군(4.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성과는 읍·면 행정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안내 등 현장 중심의 발급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읍·면 행정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발급을 독려한 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심선성 기자

